

## 폐쇄후성 폐부종 1예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박영학 · 심민보 · 조광재 · 선동일 · 김민식 · 조승호

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급성 상기도 폐쇄의 원인으로 상기도의 종양, 이물질, 부종과 후두경련 등이 있고, 만성 상기도폐쇄의 원인으로 편도 비대, 성문하 협착 등이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. 치료과정 중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합병증의 발생으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뿐 아니라 당황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, 여러 합병증 중 그 빈도가 드물지만 간과되어선 안 되는 것으로 폐쇄후성 폐부종(Postobstructive pulmonary edema)이 있다. 폐쇄

후성 폐부종은 기관튜브 발관 후의 후두연축이나 후두개염 같은 급성 상부기도 폐쇄 후 또는 편도적출술 같이 만성적인 폐쇄를 해소시킨 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폐부종을 뜻한다. 상기도 폐쇄 후 병발하는 폐부종은 대개 폐쇄의 제거와 동시에 발생하는 비심장성 폐부종으로 기도 조작 후 갑작스런 상기도 연조직의 폐쇄에 따른 이차적인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. 저자들은 기관절개술 후 성문하 협착이 있는 성인에서 재수술시 발생한 폐쇄후성 폐부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